

## 元曉의 信觀…… 深信과 仰信……

藤 能 成(후지·요시나리)

### 目 次

1. 머리말
2. 『起信論疏』에 나타난 信의 意味
3. 信成就의 과정
  - 3-1. 四信五行
  - 3-2. 信成就發心
4. 修道에 있어서의 淨土往生の 位置
5. 『宗要』下輩往生因에 있어서의 信
  - 5-1. 深信
  - 5-2. 斷理疑心과 深信
6. 疑와 信
  - 6-1. 『起信論疏』에 있어서의 疑와 信
  - 6-2. 『宗要』에 있어서의 疑와 信
7. 深信과 仰信

### 1. 머리말

필자는 拙論에 있어서 元曉의 『兩卷無量壽經宗要』의 下輩往生因에 대해서, 深信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sup>1)</sup> 이 문제에 대해서는 「元曉와 親鸞의

1) 拙論, 「元曉에 있어서의 往生因에 관한 考察」, 『石堂論叢』 第16輯, 1990년 12월간.

信觀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지만<sup>2)</sup> 지면의 관계상 충분한 논리 전개할 못하였다. 본론은 「元曉와 親鸞의 信觀비교」중 元曉의 信觀을 보충하는 의미로 작성하는 것이다.

元曉는 新羅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아직도 생생한 매력을 갖고 있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示唆을 준다. “三界唯一心”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元曉의 사상은 一心을 바탕으로 한 如來藏緣起說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混亂이 계속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元曉의 사상은 아직도 신선함을 잃지 않고,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인간의 原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元曉는 확실한 지침을 준다. 佛敎學은 哲學이면서, 동시에 信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印度에서 발생한 모든 哲學과 다를바가 없다. 元曉의 敎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단지 철학적 면만을 추구한다면 元曉사상은 그 실체를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元曉의 信觀에 관한 考察을 통해서 元曉의 마음을 追體驗하므로써 그의 菩薩精神의 實態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의 마음은 一心에 있기 때문에 元曉 개인의 마음이면서도 개인을 초월한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人間의 混迷는 新羅와 현대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精神文化는 과연 그 당시와 비교해서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대는 精神을 混迷시키는 조건들이 많아져서, 우리는 人間으로서 잊어서는 안되는 感性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현대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本來性的 회복”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元曉가 당시 민중들에게 호소한 것은 바로 “一心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바뀌어 말하면 “本來性的 回復”이었다. 佛敎의 眞理가 時代·場所·즉 時間과 空間의 제약을 초월한 것이라고 한다면 眞理에 따라 살고 一心의 마음에 의해서 행동했던 그의 삶과 말, 그 자체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지침을 줄 것이다. 그리고 一心에 들어가는 과정은 信을 成就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元曉에 있어서 信은 重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一心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一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근년 일본에서는 『宇宙에서의 歸還』(立花隆 著)이라는

2) 제4회, 한국철학자대회, 대회지에 수록(1991년 8월).

책이 화제가 되어있다.” 立花(타치바나)는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을 찾아가서 우주體驗에 대해서 묻고 이 책을 펴냈다. 우주에 간다거나 달에 간다거나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일이다. 그는 우주體驗을 통해서 비행사가 어떤 精神的 변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취제한 것이다. 놀랄 만한 것은 모두가 과학자인 우주비행사 속에서 성직자가 되었던 사람이 세 명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그 중 에도·미첼은 그들과 반대로 기독교를 떠났던 사람이다. 그는 「모든 종교의 틀은 너무나 좁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그가 안고 있었던 인생에 관한 문제가 一瞬에 풀렸다고 한다.

人間은 自意識을 가진 ego와 普遍的·靈的 存在와의 結合體다.(중략)

그러나 ego로 인해 덮혀 있었던 自意識이 되살아나 후자의 存在를 인식하면 人間에게는 무한한 Potential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중략) Spiritual한 本質을 인식하면 모든 환경여건을 넘어갈 수 있다.(p301)

그는 우주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Cosmic Sense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 Cosmic Sense는 여러 종교가가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겨우 얻었던 것인데, 미첼은 거기까지 우주이었기 때문에 平凡한 사람인 그에게도 Cosmic Sense를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自意識은 眞我가 아닌 我로서 如來藏의 상태에 있는 자신이다. 또한 普遍的·靈的 存在는 一心을 나타낸다. 그리고 自意識과 普遍的·靈的 存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한다.

個別的 生命은 全體의 部分이다.

個別的 生命이 部分으로 되어 있는 全體가 있다. 모두가 一體다.(p300)

이것을 그는 Spiritual Oneness라고 표현한다. 그대로 譯하면 一心이다. 위의 논리는 一心과 증생의 관계를 바로 說明하는 것 같다. 普遍的·靈的 存在를 認識한다는 것은 “一心을 信解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다. 그 信解가 이루

3) 立花隆, 『宇宙からの 歸還』, 中央公論社. 昭和 58年 1月 刊 가까운 시일내에 이 책이 번역돼서 발간될 예정이다.

어지면 미철의 말대로 無限한 Potential 즉 一心·智慧의 작용이 나타난다. 『起信論』은 이러한 信解에 이르는 과정을 說한다. 普遍的·靈的 存在을 인식해 나가는 길이다.

이와 같이 예도·미철의 깨달음이 元曉의 一思想에 아주 흡사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필자는 이것은 진리가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元曉의 信觀은 一心을 信解하는 道程을 나타낸다. 본론에서는 元曉의 信觀을 밝혀 元曉에 있어서 信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었는가에 대해 考察하고 그의 人間像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2. 『起信論疏』에 나타난 信의 意味

『大乘起信論』에서는 佛道는 信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아져 있다. 元曉의 『起信論疏』는 이 책의 註釋書다. 그의 敎學은 『起信論』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信觀을 고찰하는데, 『起信論疏』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佛敎一般에서 信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까한다.

坪井교수에 의하면 信은 원래 Sradhdha의 譯語이며 信의 體性에 의해서 信慧, 信受, 信解, 信心, 信智 등으로 熟語되어 있고, 淨土敎에 있어서는 佛이 說하신 敎法을 疑心하지 않고 從順하게 따르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 또한 佛을 信賴하고 信用하는 마음이라고도 한다<sup>4)</sup>

信樂교수는 親鸞의 信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의하면<sup>5)</sup> 佛敎에 있어서 信은 adhimukti나, adhisampratyaya처럼 三寶·四諦에 대해서 명확히 信認하고 결정하는 의미와, 또한 Prasada에 있듯이 澄淨安穩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元曉는 『起信論疏』(이하 『疏』로 略함)에 있어서 “大乘信起論”이라는 題를 해석하는데, “起信”은 “衆生の 信”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起信이라는 것은 이 론에 의하면 衆生信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起信이라고 하는 것은 決定함으로서 믿는 것이다. 이론바 理實有를 믿고, 그것이

4) 坪井俊英, 『淨土敎汎論』, p.231. 隆文館, 昭和55年 12月刊.

5) 信樂峻麻呂, 「親鸞における信の構造」, 『淨土敎思想研究』所收.

修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修得할 때 無窮한 德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6)

그는 起信은 세 가지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① 理가 實有임을 믿고, ② 그것은 修할 수 있다고 믿고, ③ 그것을 修德할 때 無窮한 德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三信의 해석은 如來藏緣起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안과 밖에서 작용하는 眞如·理를 믿고, (信認하고), 眞如가 나타나게 될 때 깨달음의 德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混迷는 自己를 絶대시하는 데다가 自己를 自己로서 存立시키는 眞如·理 즉 一心의 작용을 모르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眞如·一心은 자신이면서 자신을 초월한 생명이다. 『疏』에 說하기를,

無漏法이 不思議樂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本覺不空門에 의한다. 그것이 境界의 性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如實空門境說에 의한 것이다. 이 本有境智之力에 의해서 妄心이 冥熏을 받고 樂등을 마다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sup>7)</sup>

元曉는 현실이 空이 아닌 實有의 面과 空으로서 나타난 境界의 性으로 성립되어 있고, 本覺·智慧의 不思議樂에 의해서 衆生의 妄心이 熏習되고 樂을 마다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그는 一心은 如來藏이고 一心의 體는 本覺이라고 하기 때문에<sup>8)</sup> 一心·如來藏·本覺은 同一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元曉의 根本倫理이다.

그는 三信에 대해서는 각각 體大, 相大, 用大을 믿는 것이라고 밝힌다. ① 實有平等의 法界를 믿고, ② 그의 相이 (衆生을) 熏習하고 꼭 佛原을 얻게한다고 믿고, ③ 작용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用을 믿는다고 한다. 一心은 衆生心이기 때문에 衆生은 자신이면서 자신을 초월한 一心에 의해서 熏習을 받고 信을 成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三信을 일으키면,

能히 佛法에 들어가 여러 功德을 내고 여러 魔境을 벗어나 無上道에 이른다.<sup>9)</sup>

6) 『起信論疏』, 大正藏 44-203a.

7) 大正藏 44-217c~218a

8) 大正藏 44-206c

9) 大正藏 44-203a

이것을 볼 때, 信이 佛道에 있어서 중요한 位置에 있음을 알 수 있다. 信을 中心으로 한 佛敎觀이 나타난다. 元曉는 또한 疑法과 疑門이라는 信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면 信이 決定되고 一心을 信解한다고 한다.

저 二邊의 疑를 제거해서 大乘이 다만 一心임을 信解하기 때문에 大乘正信을 일으킨다고 한다.<sup>10)</sup>

그래서 元曉가 말하는 信은 究極적으로 信解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信解하는 내용은 “一心에 대한 信解”에 歸着하는 것이다. 그는 「大智度論」의 유명한 구절을 들어서 “佛法의 大海는 信을 能入으로 하고 智를 能度로 한다.”고 說하고 나서,

그래서 信智를 들고 佛道を 넓힘을 밝힌다.<sup>11)</sup>

이것은 信·智가 不可分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信樂교수는 “信의 究竟은 智慧를 의미하는 것이고 佛敎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智慧를 얻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sup>12)</sup> 하는데, 여기서 元曉도 信에서 智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信은 佛道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 위치를 정하면서 그 信으로 해서 究竟인 智에 이르는 것이다.

### 3. 信成就의 과정

#### 3-1. 四信五行

「起信論」에 있어서는 信을 成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分別發趣道相」과 「四信五行」을 든다. 「分別發趣道相」에는 信心이 成就되고 나서 일으키는 信成就發心에서

---

10) 大正藏 44-204c

11) 上同

12) 信樂教麻呂, 「淨土敎における信の性格」, 「眞宗研究」 제11輯, 昭和41年 11月刊.

시작하고, 法身證見에 이르는 과정에 解行發心, 證發心을 든다. 또한 正定聚에 들지 못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四信五行」이다. 「起信論」에서는 「四信五行」의 修行을 하고 나서 「信成就發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元曉는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그는 正定聚에 아직 들지 않은 不定聚에는 勝人과 劣人이 있고 이중 勝人은 「四信五行」을 修할 필요가 없고 직접 信成就發心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한편 劣人은 「四信五行」을 修하므로써 「發越道相」의 信成就發心으로 들어간다고 한다.<sup>13)</sup> 그래서 元曉는 「修行信心分」의 「四信五行」은 不定聚중 劣人을 위해서 說해진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

「起信論」에서는 四信을 다음과 같이 說한다.<sup>14)</sup>

- ① 根本을 믿는다.
- ② 佛이 無量功德을 가진다고 믿는다.
- ③ 法에 大利益이 있다고 믿는다.
- ④ 僧이 能히 올바르게 自利利他를 修行할 수 있다고 믿는다.

四信은 앞에 언급한 三信에 대응한다. 信理實有는 ①, 信修可得은 ④, 信有無窮功德用은 ②·③이다. 元曉는 「疏」에서 ①信根本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고, 기타 ②~④에 대해서는 “餘文可知”라고 해서 解釋하지 않는다. 「信根本」에 대해서는,

信根本이라고 하는 것은 眞如之法·諸佛이 攝하는 곳이며, 衆行之原이다. 그러므로 根本이라고 한다.<sup>15)</sup>

根本은 理實有이고 일심이다. 그리고 그는 信과 行의 관계에 대해서 說하기를,

信이 있고 行이 없으면 즉 信不熟이다. 不熟之信은 緣을 만나 물러난다. 그래서 五行을(修하므로)四信을 이룬다.<sup>16)</sup>

13) 大正藏 44-221b~c

14) 大正藏 32-581-c

15) 大正藏 44-221c

16) 上同

行은 信을 이루기 위해서 修하는 것이다. 올바른 信, 熟한 信은 꼭 行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人間の 마음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서 만이 구제되는 것이다. 信과 行은 不可分이며, 信을 이루기 위해서 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五行은 五門行이라고도 불리우고 六波羅蜜에 해당한다. 五門行은 ①施門(布施), ②戒門(持戒), ③忍門(忍辱), ④進門(精進), ⑤止觀門(禪定·智慧)이다. 元曉는 이 중에서 ⑤止觀門을 중시했다. 止와 觀을 車의 二輪에 비유했다.

二輪不具, 即無運載之能. 一翼若闕, 何有翔空之勢 故言止觀不具, 則無能入菩薩道.<sup>17)</sup>

라고 해서 止觀을 갖추지 않으면 菩薩道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疏』에 疑門을 해결하는 대답으로서,

여러 教門이 많다하더라도 처음 修行에 들어가는데, 二門을 벗어나지 않는다. 眞如門에 의해서 止行을 修하고 生滅門에 의해서 觀行을 일으킨다. 止觀의 두개가 같이 운반해서 萬行을 갖춘다. 이 二門에 들어가 여러 문을 모두 달성한다.<sup>18)</sup>

一心을 修하는 모든 修行은 止觀門에 歸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四信도 결국은 止·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元曉는 『起信論疏』를 쓰는데 있어서, 不定聚중 勝人보다 劣人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 3-2. 信成就發心

元曉는 『起信論』의 「信成就發心」은 不定聚중생 중 勝人과 또는 四信五行을 成就한 劣人을 위해서 說해진 것이라 한다. 이것은 『起信論』 「分別發趣道相」에 說

17) 大正藏 44-225c

18) 大正藏 44-204b

해지는데 信成就發心에서 시작해서, 解行發心, 證發心으로 修行이 진척된다. 元曉에 의하면 三種發心은 아래와 같다.

- 信成就發心: 十住位에 머물고 十信을 兼取한다. 十信位에 있어서 信心이 成就되고 決定心을 일으키므로 즉 十住에 들어간다.
- 解行發心: 十廻向에 머물고 十行을 兼取한다. 十行位에 있어서 能히 法이 空임을 解하고 法界에 隨順한다. 六度行을 修해서 六度行이 純熟할 때 廻向心을 일으키고 向位에 들어가기 때문에 解行發心이라고 한다.
- 證發心: 初地以上에 머물고 乃至十地에 이르기까지를 나타낸다. 앞에 二重(의 發心)은 相似發心이다. 法身を 證得해서 眞心을 일으킨다.

이중 信이 成就되어서 일으키는 發心이 信成就發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十種信心을 修해야 한다. 즉 ①信心, ②念心, ③精進心, ④定心, ⑤善心, ⑥戒心, ⑦回向心, ⑧護法心, ⑨捨心, ⑩願心을 나타낸다. 信成就를 위해서는 一萬劫에 이르는 修行期間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十信중에도 勝者와 劣者가 있고 勝者는 發心하고 十住位에 들어가지만 劣者는 물러나서 二乘地에 떨어지게 된다. 一萬劫의 시간은 너무나 길다. 이 기간에 걸친 修行을 이루고자 하면 강한 정신이 필요하다. 『起信論』은 인간의 삶을 永遠한 시간의 Scale로 보고 있는데 元曉도 마찬가지다. 一念一剎那도 물러나지 않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만이 信을 成就할 수 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無量壽經』에 “大海의 물이라도 어떤 사람이 몇劫에 이르는지도 모르는 긴 시간에 걸쳐서 계속 퍼낸다면 말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자세의 필요성을 說하는 것이 『起信論』이다.

#### 4. 條道에 있어서의 淨土往生의 位置

『起信論』에 淨土往生을 권하는 부분이 있다. 初學者가 四信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서 의욕을 상실할 때, 如來의 勝方便에 의해서 信心의 攝護를 받고 他方佛土에 태어나 不退位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sup>19)</sup>

19) 大正藏 32-583a. 元曉는 이 부분을 “初學者不退方便”이라고 한다.

「起信論」의 문맥중 “若觀身畢竟得生”은 원래 初學者로서 法身을 보는 자가 있다는 뜻인데, 元曉는 法身을 보는 자를 十解 이상의 보살로 규정했다. 이것은 「起信論」 자체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發趣道相」에 說해진 것과 같이 法身은 信成就한 十解이상의 보살만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元曉가 “觀”을 중시하는 것은, 그가 「四信五行」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五行중의 止觀門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疏」에서는 止·觀에 대해서 說하는 부분의 바로 뒤에 「初學者不退方便」에 관한 解釋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觀法身に 中점을 맞추어서 往生을 설한다. 十解이상의 보살은 眞如法身을 少分見하기 때문에 往生하고 初地이상의 보살은 眞如法身을 證見하기 때문에 往生한다고 한다. 信成就發心하고 解行發心·證發心에 이르려고 하는 보살도 淨土에 往生한다는 것이 元曉의 해석이다. 그리고 信成就發心한 十解이상의 보살을 “上輩人”으로 삼는다. 十解이상의 경우 眞如法身을 觀하므로써 往生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觀”이 없더라도 즉 法身을 보지 못하더라도 往生할 수 있다고 해서 九品往生을 나타낸다.

이중에 논하는 것은 上輩人이 필히 往生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法身을 보지 않으면 往生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sup>20)</sup>

그러므로 元曉는 正定에 대해서 說한다. 正定에는 세가지가 있다. 見道이상은 無漏道를 約하기 때문에 正定이라고 하고, 十解이상은 不退位에 머물기 때문에 正定이라고 하고 나서,

九品往生은 모두 正定이라고 한다. 勝緣力에 의해서 不退를 얻기 때문이다. 이중의 자세한 것은 無量壽經料簡에 說한 바와 같다.<sup>21)</sup>

九品은 上·中·下의 三品과 그것이 上·中·下생으로 나누어지는 「觀無量壽經」의 九品이고 往生은 阿彌陀佛淨土에의 往生이다. 往生하는 자는 阿彌陀佛의 勝緣力(本願力)에 의해서 不退를 얻기 때문에 正定이라고 한다. 여기서 「無量壽經料簡說」은 은정희 교수에 의하면 元曉著 「無量壽經料簡」을 가리킨다.<sup>22)</sup> 이 책은 散失되어

20) 大正藏 44-225c

21) 上同

22)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p411, 一志社 1991년 5월간.

있어서 參照할 수 없다.

元曉의 『兩卷無量壽經宗要』(이하 『宗要』로 略함) 『約人分別』은 抽論에 있어서 언급한 바와 같이,<sup>23)</sup> 大乘의 修行者에게 淨土往生을 권하는데 있어서 위에 說한 『疏』의 論理를 바탕으로 한다. 『約人分別』에 있어서는 正定聚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먼저 小乘의 修行者의 경우를 들고 그 다음에 大乘의 修行者를 不定性人과 菩薩種性人으로 나누어 說한다. 이중 菩薩種性人은 本性正定聚다. “無始時來, 五逆을 범하지 않고 善根을 끊은 적도 없는 사람이다. 菩薩種性人은 “곧바로 大乘을 향해서 처음 趣入할 때 오랫동안 不退를 얻는다.”고 한다. 善根을 쌓아 온 사람이어서 “처음 趣入할 때”(始趣入時) 十信位에서 不退를 얻는 것이다. “業力에 의해서 惡趣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不定性人은 “만약 不定種性人이 바로 大乘을 向해서 趣入할 때는, 種性位에 이르면 正定에 들어간다”고 해서 『起信論』 『信成就發心』에 이르는 부분을 인용한다. 一萬劫에 걸친 修行信心을 마치고 發心하고 正定聚에 들어가서 不退가 된다고 한다.<sup>24)</sup> 이것은 穢土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며, 한편 淨土에서는 이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만약 저 淨土에 태어나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定性二乘은 往生하지 않는다. 不定性중 三品之人이 大乘心<sup>25)</sup>을 일으키면 모두 저 땅에 태어나 태어날 때 正定에 들어간다. 外緣力에 住持되기 때문이다.<sup>26)</sup>

라고 해서, 一萬劫의 修行信心의 어려움을 들고 나서 淨土往生의 優位性을 강조한다. 大乘의 修行者가 正定聚에 이르는 過程을 『起信論疏』와 함께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抽論, 「元曉에 있어서의 淨土往生의 意味」, p17 『現代와 宗教』 第14輯, 1991년.

24) 『大乘起信論別記』에 信心成就한 사람은 十解이고, 또한 十往, 十信이라고도 한다. 원래 十信은 十解에 이르지 않는 段階인데, 여기서 十信을 十解·十往과 同一視한다. 大正藏 47-240a~b

25) 大乘心은 菩提心을 나타낸다.

26) 大正藏 37-130a



下輩往生因에 대해서 元曉는 上·中輩에서 說한 바와 같이 發無上菩提心を 正因으로 삼는다. 그는 “無上菩提心”은 “世間の 富樂과 二乘涅槃을 되돌아 보지 않고 一向히 三身菩提를 志願하는 것”이라고 한다.

下輩往生因은 不定性人과 菩薩種性人의 두 분류의 사람에게 配當시켜서 說해진다. 두 분류의 사람은 五性各別說<sup>27)</sup>에 의한 成佛의 可能性 즉 佛種을 갖추는 자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定性二乘은 往生하지 못한다고 한다. 不定性人의 往生因은,

- ① 만약 여러 功德을 만들 수 없더라도 바로 無上菩提心を 일으킨다. 이것은 正因을 나타낸다.
- ② 乃至十念하고 오직 彼佛을 念한다. 이것은 助滿業이다.
- ③ 彼國을 願生한다. 이 願이 앞의 行과 和合해서 因이 된다.

無上菩提心은 『疏』에서 말하는 三信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한편 菩薩種性人의 往生因은,

- ① 甚深의 法을 듣고, 歡喜信樂한다. 이 句는 發心正因을 兼한다. 단 앞의 사람과 深信을 드는 것이 다를 뿐이다.
- ② 乃至一念하고 彼佛을 念한다. 이것이 助滿業이다. 앞 사람은 深信이 없기 때문에 필히 十念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深信이 있기 때문에 十念을 具足할 필요가 없다.
- ③ 至誠心으로 彼國을 願生한다. 이 願이 앞의 行과 和合해서 因이 된다.

『無量壽經』의 下輩往生因은 원래 同一한 사람의 往生因을 說하고 있는데, 元曉는 前半部를 不定性人, 後半部를 菩薩種性人에게 해당시켰다.<sup>28)</sup> “聞甚深法, 歡喜信樂”은 發心正因을 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元曉가 『疏』에서 三信중의 하나로 삼는 “信理實有”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래서 “發心正因을 兼한다”고 할 수

27) 衆生の 機類를 나누고 成佛과 不成佛을 정한다. 定性聲聞, 定性緣覺, 定性菩薩, 不定性, 無性的의 五種類이다. 不定性은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菩薩聲聞不定, 菩薩緣覺不定, 聲聞緣覺不定, 聲聞緣覺菩薩不定이다. 이중 定性菩薩과 不定性의 一部만이 佛種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成佛한다. (織田佛敎大辭典).

28) 이것은 拙論에 있어서 考察했다. 「元曉에 있어서의 往生因에 관한 考察」, p32.

있는 게 아닌가. “歡喜信樂”에는 이미 法에 대한 깊은 理解 즉 信解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그가 이 사람에게는 深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法에 대한 깊은 信解”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發菩提心은 “起信”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不定性人에는 深信이 없고 信이 약하다는 해석이 이루어진다. 『疏』에서 深信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以深信眞如法故少相而見」이라고 하는 것은 十解에 있어서 人空門에 의해서 眞如理를 보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相似解이기 때문에 少分이라고 한다.<sup>30)</sup>

深信은 眞如理에 대한 信解다. 菩薩種性人이 十信位에 들어갈 때 正定聚에 드는 것은 오로지 深信에 의한 것이다. “深信이 있기 때문에 乃至十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을 볼 때 元曉가 深信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중요시 했던가를 推察할 수 있다.

## 5-2. 順理發心과 深信

元曉는 『宗要』에서 隨事發心과 順理發心을 나타낸다. 隨事發心은 不定性人의 發心이다. 隨事發心은 事에 따라 發心하기 때문에 眞如理에 대한 理解는 없고 얇은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元曉는 그래서 “有可退”이라고 한다. 隨事發心은 四弘誓願에 準拠한 것이며, “煩惱無數, 願悉斷之. 善法無量, 願悉修之. 衆生無邊, 願悉度之”<sup>31)</sup>를 나타내고 이것이 無上菩提의 因이 된다고 한다.

順理發心은 理를 이해하고 나서 일으키는 마음이니가 無退轉이며, 深信을 가지는 菩薩種性人에 의해서 하게 된다.

順理發心은 諸法이 모두 幻夢과 같고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니고 言을 떠나 慮를

29) 『無量壽經』에는 「저 佛國土에 태어난 여러 보살등」은 「聞甚深法, 心不疑懼. 常能修行其大悲者」라고 하는 것을 보면 「聞甚深法, 歡喜信樂」은 元曉에게서 깊은 信解로서 보였을 것이다. (眞宗聖敎全書 I - p28).

30) 大正藏 44-219a

31) 大正藏 37-128c

꿈한다고 信解하는 것이다. 이 信解에 의해서 廣大心을 일으킨다. 煩惱·善法이 있다고 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꿈으려거나 修하려거나 하는 것이 있다고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컨대 모두를 꿈거나 修하거나 하고자 하더라도 無願三昧와 다를 바가 없다. 無量한 有情을 모두 구제하고자 하더라도 구제하는 쪽과 구제받는 쪽에 구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空無相에 能히 順隨한다.<sup>32)</sup>

順理發心은 深信에 의해서 일으키는 마음이다. 順理는 결국 “空無相에 能히 順隨하는 것”이다. 深信이 있는 사람이 “信解에 의해서 廣大心을 일으키기”는 것이니까 여기서 深信이 信解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元曉는 信解에 대해서 說한 바가 있다. 元曉에는 “決定之心을 일으키므로 大乘이 단一心임을 信解한다.”<sup>33)</sup>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決定之信”은 『疏』에 “信心成就發決定心，即入十住，故名信成就發心也”(大正藏 44-219c)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信成就發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大乘六情懺悔』에는

諸佛의 不思議業을 內因으로 하고, 밖에 諸佛의 大悲願力에 의지해서 勇斷히 (조금씩) 信解한다. 단 자신은 긴 꿈속에서 자고 있었고, 妄計를 實로 삼고 六塵과 男女의 二相에 잘못 따라 갔었다.<sup>34)</sup>

이상의 用例에 비추어 深信은 空·眞如理·一心에 대한 信解를 나타내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深信에 있어서의 信解는 『宗要』에 나온 如來四智중의 하나인 不可稱智의 信解와 같다. 不可稱智는 보살이 漸得하는 智다.

不可稱智는 妙觀察智다. 이 智는 不可稱境을 觀察한다. <一切法은 모두 꿈과 같고,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니고 覺을 떠나 慮를 끊는다.><sup>35)</sup>

不可稱境을 觀察하는 智를 不可稱智라고 하는데 여기서 觀察하는 내용과 順理發

32) 上同

33) 大正藏 44-204c

34) 大正藏 47-922b

35) 大正藏 37-130b

心에서 信解하는 내용은 같다. 順理發心에 있어서는 “諸法(一切法), 皆如幻夢, 非有非無, 應言緣慮”로 되어 있고 똑같은 문장이다. 그래서 深信은 不可稱智의 信解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元曉는 順理發心은 “無願三昧”와 같다고 說하는데 無願三昧는 『無量壽經』에 나온다.

보살의 諸彼羅蜜을 究竟해서 空·無相·無願三昧와 不生·不滅諸三昧門을 修하고 聲聞·緣覺의 地를 遠離한다.<sup>36)</sup>

이것은 “淨土에 往生한 보살”의 果에 대한 說明이다. 淨土往生의 果인 만큼 無願三昧는 높은 證果이며, “聲聞·緣覺의 地”를 遠離하고 있는 것이다. 深信=信解는 그만큼 높은 段階에 있다. 不可稱智는 본래 唯識說에서 第六識을 轉해서 얻는 智다. 『疏』에는 “深信眞如法”이란 十解菩薩이 “人空門에 의해서 法界를 본다”<sup>37)</sup>고 하고, 또한 解行發心을 해석하는데 “十行位中, 能解空法, 隨順法界”<sup>38)</sup>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順理發心중에서 “能順隨於空無相”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深信=信解 → 順理發心은 적어도 十解의 菩薩에 의해서 일으키게 되는 發心이라고 볼 수 있다.

元曉는 “順理發心은 不可思議하다”고 말해서 인간의 思惟를 초월한 일이라고 述懷한다.

## 6. 疑와 信

### 6-1. 『起信論疏』에 있어서의 疑와 信

『疏』에 『起信論』을 만드는 大意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大意는 五言十二句으로 되어 있는데, 元曉는 上半 즉 앞의 十句는 “下化衆生”이며, 下半 즉 마지막 二句는 “上弘佛道”의 뜻을 밝히는 것이라 한다. 이 중 “下化衆生”에 대해서 說하는 가운데 信成就를 방해하는 두 가지의 疑에 대해서 언급한다. “衆生이 오랏

36) 眞宗聖教全書 I - p30

37) 大正藏 44-220b

38) 大正藏 44-119c

동안 生死海에 갇혀서 涅槃之岸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단 疑惑邪執에 의한다.”<sup>39)</sup>고 해서 下化衆生の 要는 疑惑을 없애고 邪執을 버리는 것에 있다고 說한다. 元曉는 “大乘者가 가지는 疑惑을 방해하는 疑法과 修行을 방해하는 疑門이 있다고 한다.

疑法은 “大乘法이 하나이면서 多인 無異法이라면, 여러 증생과 보살이 어찌 弘誓願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만약 법이 많고 一體가 아니라면 남과 내가 따로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同體大悲를 얻을 수 있는가”<sup>40)</sup>라는 疑心이다.

또한 疑問은 “如來가 세운 教門이 많은데, 어느 門에 의해서 初發修行하면 되는지 택할 수 없다”는 의심이다. 그는 대답하기에,

지금 이 두가지 疑를 없애기 위해 一心法을 세우고 二種의 門을 연다. 一心의 法을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의 疑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大乘法에는 단 一心이 있는 것이며, 一心法 이외에 더 다른 법이 없다. 다만 無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一心에 해매고 여러 彼浪을 일으키고 六道를 流轉하는 것이다. 그러나 六道之浪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一心之海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 一心은 六道를 움직이게 하고 弘濟之願을 일으킨다. 六道는 一心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能히 同體大悲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또한 第二疑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한다.

여러 教門이 많다 하더라도 처음에 修行에 들어갈 때 二門을 벗어나지 못한다. 眞如門에 의해서 止行을 修하고 生滅門에 의해서 觀行을 일으키는 것이다. 止와 觀이 雙運하고 萬行이 斯備된다.<sup>42)</sup>

그리고 邪捨는 人執과 法執이며,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위의 두 가지 疑心을 없애고 決定之信을 얻고 大乘이 단 一心임을 信解하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39) 大正藏 44-224b

40) 上同

41) 上同

42) 上同

元曉에 있어서 法은 一心法이고 行은 止·觀行이다. 法의 나타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一心法 밖에 없다고 하는 元曉의 論理는 說得力이 있다. 疑를 없앨 때 信이 決定되고 大乘이 단 一心임을 信解하는 것이기 때문에 信을 修하는 과정은 바로 疑를 없애는 과정과 같고 그 究竟에는 信解가 있다. 이것이 起信이고 佛道이고 元曉의 佛敎觀이다. 淨土往生도 이 信成就의 과정에 있다. 不退의 方便인 念佛 즉 淨土願生도 一心을 信解하고 一心에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勝方便=勝緣力에 의해서 淨土願生者의 信을 如來가 攝護하므로써 一心에 돌아가는 道程에引導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曉가 말하는 信은 단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一心의 智慧에 의해서 疑心을 없애는 信解를 나타낸다.<sup>43)</sup> 佛敎의 信은 먼저 믿고 信認한 후 智慧에 의해서 의심이 없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거듭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止觀의 行은 信解에 이르는데 필히 修해야 하는 것이다.

#### 6-2. 『宗要』에 있어서의 疑와 信

『宗要』의 마지막 부분은 『無量壽經』에 쓰여진 疑惑에 관한 論攷으로 되어 있다. 元曉는 이것을 四疑惑衆生이라고 부른다. “如來의 四智를 疑心하는 증생은 淨土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邊地에 있어야 한다”는 『無量壽經』의 記述에 의거 하는 것이다. 四智란 不思議智, 不可稱智, 大乘廣智, 無等無倫最上勝智(大圓鏡智)를 나타낸다. 그는 四智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不思議智; 不思議한 일을 능히 이루는 智.
- ② 不可稱智; 不可稱境을 觀察하는 智.
- ③ 大乘廣智; 두루 無邊의 有情을 運載하고 無上菩提에 이르게 하는 智.
- ④ 無等無倫最上勝智; 如來의 大圓鏡智. 비로소 本識을 轉하고 바로 心源에 들어간다. 一切攝境에 있어서 圓照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智는 前三智를 포함해서 그것을 起過하는 것이어서 佛만이 頓證한다.

四疑는 “質直하지 않은 一性을 가지고 邪聽我慢하고 薄道心の 사람”이 四智를 알지 못하고 내가지 疑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深信이 없는 不定性人을 가리킨다.

43) 『疏』에 「涅槃經言. 佛性者第一義空. 義空名爲智慧」라고 한다. (大正藏 44-221c). 또한 『涅槃宗要』에서 「佛性之體은 一心이다」라고도 한다. (佛性之體正是一心), 大正藏 38-249b

四疑는 ① 疑成作事智, 所作之事. ② 疑妙觀察智, 所觀之境. ③ 疑平等性智等, 齊度之意. ④ 疑大圓鏡智, 遍照一切境義이다. 여기서 第四疑에 대해서 考察할까 한다. 元曉는 第四疑를 가진 사람 즉 大圓鏡智를 疑心하는 사람에게 “오직 仰信하라”고 권하고 있다. 지금 까지 언급해 온 信解와 다른 “仰信”이라는 개념을 세운다. 仰信을 권하는 이유는,

왜 仰信을 일으키라고 하느냐. 이를테면 世界는 無邊와 같고 虛空之外로 나갈 수 없다. 이와 같이 萬境은 無限이지만 모두 一心之内에 들어간다. 佛智는 相을 떠나 心源에 들어간다. 智와 一心은 渾同無二다. 始覺은 즉 本覺과 같다. 그래서 이 智를 벗어나서는 一境이 存在하지 않는다. 이 道理에 의해서 無境不盡이므로 有限이 아니다. 無限한 智로 無邊境을 비추기 때문이다.<sup>44)</sup>

위와 같이 모두가 一心속에 들어가 있고 佛智는 一心과 渾同無二이기 때문에 佛智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이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疏』의 第一疑에 대한 대답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元曉는 『起信論』을 引用한다.

一切境界는 本來一心이며 想念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衆生은 境界를 妄見하므로서 心에 分齊가 있다고 생각한다. 想念을 妄起해서 法性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能히 決了(이해)할 수 없다. 諸佛如來는 見相을 떠나 있으므로 미치지 않는대가 없다. 心眞實이기 때문에 즉 이것이 諸法之性이며 自體가 一切法을 조명한다는 것을 밝힌다. 大智의 用(作用)인 無量한 方便이 있다. 여러 衆生이 (信)解함에 따라 能히 두루 一切法義를 開示한다. 그러므로 一切種智라는 이름을 얻는다.<sup>45)</sup>

이것은 『起信論』 「分別發趣道相」의 마지막 부분으로 『修行信心分』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一切種智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다. 元曉는 “仰信”을 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引用했다. 중생도 이 세계도 一心之内에 있다. 그리고 如來와 一心은

44) 大正藏 37-131b, 이중 「無境不盡, 非有限」은 趙明基譯에는 「경계가 다하지 않음이 없지만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다. (元曉聖師全書 第一卷, p685).

45) 上同. 『起信論』의 原文은 大正藏 32-581b에 있다.

同體이며, 一心은 智와 渾同無二다. 그렇다면 모두가 一心·如來의 智慧의 用아래서 그 작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大智의 用은 여러 方便을 쓰고 중생에게 작용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 如來는 衆生心과 다름 바가 없다. 衆生은 仰信함으로써 一心을 信解하는 道程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元曉는 仰信을 권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淨土往生을 說하는데 『起信論』의 「一切種智」에 대한 부분을 引用하므로 淨土往生을 “一心之法”에 歸着시켰다. 淨土願生은 如來의 勝方便이며 往生의 참뜻은 “一心之法”에 돌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 元曉의 主張인 것 같다. 阿彌陀佛의 本願力은 報身佛로서의 智慧의 작용인데 그의 구제의 작용은 “大圓鏡智의 用으로서의 方便”이라는 것이다. 大圓鏡智는 一心 本覺이 轉하므로서 나온 智이며, 衆生自身이면서 自身을 초월한 共同의 生命力임을 알 수 있다. 중생과 一心·如來의 關係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우주비행사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인간의 存在는 섬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다.<sup>46)</sup> 섬은 바다에 있으면서 자신이 섬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바다 위로 나온 부분만이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닷 물이 없어진다면 섬은 섬이 아니다. 지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즉 섬은 지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일부분인 것이다. 섬을 섬으로서 착각하고 있다. 一心을 信解한다는 것은 자신이 섬이면서 지구의 一部分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섬과 지구의 關係를 생각하면, 모든 衆生이 하나이며 如來와 중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一心이고 섬은 중생이다.

元曉는 마지막으로 仰信을 강조한다. 四智의 境에 대해서 仰信하므로써 “大智의 用”에 의해 法에 대한 信解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本覺不思議熏을 因으로 樂을 마다하는 마음을 일으킨다”<sup>47)</sup>거나 “諸佛의 不思議熏을 內因으로, 諸佛의 大悲願力을 밖의 緣으로 해서 信解한다”<sup>48)</sup>거나 하는 元曉의 말에 따라 안과 밖에서 작용하는 一心·如來가 최대한 活性化하는데 있어서 仰信은 너무나 基本的인 마음자세가 아닌가 싶다. 元曉는 疑心을 벗어나 仰信하므로써 필히 淨土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46) 中島淳一씨의 강연에서. 中島씨는 현재 日本에서 畫家, 詩人, 俳優로서 活動하고 있다.

47) 『疏』, 大正藏 44-209c

48) 『大乘六情懺悔』, 大正藏 47-922b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四疑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땅에 태어나더라도 邊地에 머물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四智之境에 대해서 명확히(信)解할 수 없더라도 能히 스스로 謙(虛)하게 心眼이 열리지 않더라도 오직 如來를 우러러 보고 一向히 伏信하라. 이와 같은 사람은 그의 行品에 따라 彼土에 往生하고 邊地에 머물지 않는다.<sup>49)</sup>

여기서 말하는 仰信은 『起信論』『勸請利益分』에도 보인다.<sup>50)</sup> 元曉는 『疏』에서 仰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一心에 대한 信解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大智의 用”을 알게 되기 때문에 仰信을 說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宗要』에서 往生因을 總括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강 여러가지 說해지는 往生因은 바로 正報莊嚴을 能히 感할 뿐만 아니라 또한 依報淨土를 感具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로지 如來本願力을 承(服)하기 때문에 感에 따라 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業因力에 의해서 成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往生因은 없다고 說한다.<sup>51)</sup>

라고 해서 往生은 모두 如來의 本願力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感에 따라 그 用(작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本願力은 大智의 用으로서의 方便力이다. 一心에 대한 仰信·伏信의 자세가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仰信·伏信하므로써 如來本願力에 包攝되어 淨土往生하는 것은 一心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本願力을 承服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一心·如來의 大智의 用에 仰信·伏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深信과 仰信

49) 大正藏 37-131b

50) 大正藏 32-583b. 毘婆沙의 罪가 무거운 것을 說해서 「是故衆生。但應仰信不應誹謗」라고 한다.

51) 大正藏 37-128b. 여기서 「隨感受用」을 「感에 따라 用을 받는다」라고 譯했는데 用은 「大智의 用」을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元曉에 있어서 信은 『疏』에 언급되어 있듯이 修道에 있어서 제일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信을 成就한다는 것은 그의 佛敎觀에 있어서 佛道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가지 의심을 없애고 決定之信을 일으키므로써 大乘이 단一心임을 信解한다”는 말에 나타나듯이 信을 成就해 나가는 길은一心을 信解해 나가는 길과 다름이 없다.

『宗要』에 나오는 信의 개념은 『起信論』의 根幹으로 되어 있는 深信=信解와 또 하나의 仰信으로 대표된다. 信은 자신의 恣意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智慧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元曉는一心은 智慧와 渾同無二라고 한다. 智慧의 작용에 의해서 “알게 됨”을 되풀이 하므로써 疑心을 벗어나 信解가 이루어져 간다. 『疏』에는 信解·決定之信에 이르는 방법으로 止·觀을 제시한다. 여기서 信解는 『宗要』의 “深信”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信解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심을 벗어나야 하듯이, 信의 또 하나의 개념인 仰信에 이를 때도 네가지 의심을 벗어나야 한다. 元曉는 仰信을 決定之信·信解一心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로 삼았다. 止·觀의 修行을 실천하지 못하는 많은 민중들 즉 不定性人들에게一心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仰信”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다. 그리고 仰信하라는 말은 민중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修行僧, 大乘菩薩들을 향해서 元曉가 던졌던 외침이다.一心·如來의 大智의 用앞에一向伏信하는 자세가 人間으로 하여금 “本來性의 回復”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元曉에 있어서의 止·觀의 의미가 밝혀진다면 元曉思想은 더욱 확실해 질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술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